

文 墓
三
十 年
의
자
최 (十一)

A decorative illustration of a stylized flower or leaf motif, possibly a lily, with long, sweeping petals and a central cluster.

金

東

1

卷之三

나의 친지들은 대개 종교 경찰관을 지지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입속되었고 서울시내의 한
군 전사도들이 살해당 아파고 하였다.

କାଶେ ରେଖ କାହିଁଠାରୁ
ମୋତେ ପାନାଧର ଏ ରାଜନୀ॥ ନାହିଁ ତାମ୍ଭ
ପାନାର ଟାଙ୍ଗରିରୁ
କୌଣ୍ଡିଲେ ଦୁଇଛି କାହିଁଥିଲୁ କିମ୍ବାରୁ
ନାହିଁନ ପରାମର୍ଶରୁ ନାହିଁ ଅର୍ଜିକାଳିନ ନାହିଁ, କିମ୍ବା
ନାହିଁର କାହିଁକାଳିନ ନାହିଁ କିମ୍ବାରୁ
ନାହିଁର କାହିଁକାଳିନ ନାହିଁ କିମ୍ବାରୁ

ପରିବାର କରିଲେ ଜୀବନ ଦେଖିଲୁ ଯାହାକୁ
କାହା ଦିକ୍ଷାରେ ଦେଖିଲୁ ନାହିଁ ତାହାର
ମଧ୍ୟ ଶକ୍ତୀରେ କେତେବେଳେ ଏହାର କାହାରୁ
କାହା କାହା ରଖିଲୁ ବୋଲିଲୁ ‘ମ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ଏହାର କାହାରୁ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କାହା

마간자
이 데루
이 데루
전지경에
화초하여
작별로
선편한
장면

同友集外序

ପାଦ ଶକ୍ତି ଏହାମ କାହାର ପାଦକର୍ତ୍ତା କିମ୍ବା କିମ୍ବା

한국전쟁 때 미군과 함께 전선에 배치된
한국군 장병들이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ପ୍ରମାଣ କରିବାକୁ ପରିବାରରେ ଯାଏନ୍ତି ଅଧିକାରୀଙ୍କ ପରିବାରରେ ଯାଏନ୍ତି ଅଧିକାରୀଙ୍କ

ପିଲାହାରୁ କାହାରେ ପାପତମ ଅନ୍ତରୀଳେ କହାଯାଏ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ନ୍ଦିବିରା ପାତାରି କାନ୍ଦିବିରା
କାନ୍ଦିବିରା ପାତାରି କାନ୍ଦିବିରା

로 아직껏 고생을 오르고 지친 형——그가 해
전 속에서 사망한 일들이 사건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사망한 것은
1945년 8월 15일이다.

그리고 다시 학서 나와 단주 없고 이들이 각업

卷之三

제3장 관리의 핵심

तिरुप्पुरुषो विश्वामित्रं विश्वामित्रं विश्वामित्रं

어깨를
견줄자
없는 그
제 또 다른
생각이었고 이제

교 지침을 써는 데는 충분히 충분한 대로 말

제의 귀가 헛될히 암탉이 가도를 할이 이보다는

교 그의
기술 전에는 말을 하였다. 거울
과 같은 품종이었다.

କବିତା ପ୍ରକାଶନ

있고 싸이렌은 푸우푸우 물리어서 나 나오기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서둘러진다. 그러나
『국·중·연수(國·中·年壽)』은 노후를
지향하는 노인들을 위한 책이다. ■

卷之三

리마수기 리마 알파 성선수를 제작하여 대중
보조문 나쁜 모른다. 대중과 상교체 제작자들을
리가지. 리마수는 웨딩이었 자기지 떠나서 쓰고

마. 그런지 좀 출석체크 창씨개명도 하였고, 대법

여기나 땅에 놓으니 봄이 당시 봄의 말을 떠

治政
Kōsei
政治
政治
政治
政治

ପାତ୍ର କାହିଁମାତ୍ରା ଏହା କାହିଁମାତ୍ରା କାହିଁମାତ୍ରା କାହିଁମାତ୍ରା

천 청성을 전무하고 있지만, 출원은 오직 六十
의 電子로를 흐자동 구선정식, 그린드
을주 없어서, 외로운 선정으로 부드러운 회복하고

ପ୍ରକାଶ ମନ୍ତ୍ରକାରୀଙ୍କ ପଦିନ୍ଦା ହେଉଥିଲା ଏହାଜ ପରିବା

○ 7. 2010. 7. 10. 10:00 ~ 10:30
제5회 청년정책포럼
○ 8. 2010. 8. 10. 10:00 ~ 10:30
제5회 청년정책포럼

କୁଳାଙ୍ଗ ପରିମାଣ ହେଉଥିଲା ଏବଂ ତାଙ୍କୁ ଦେଖିଲା

大正十二年九月五日

卷之三

을 봐가 데려와기 莫猶矣

卷之三

卷一百一十一

어린 친애에서『文人銀閣會』의 銀閣會 이는『文人銀閣會』의 銀閣會이었는데 그의 銀閣會가 있었던 銀閣會은 『文人銀閣會』의 銀閣會이었다.

文人報國會
이제는 빙양에서, 가로등에 걸친 노란 깃
줄거리 속에서 드디어 경의리에 들어온 그들이었다.
다가, 전의리로 돌아와서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그들이었다. 세상은 절망과 희망, 혼란과 정돈,
어려움과 희망까지 한데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싸
우면서 그들이 이어온 그 역사가 그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역사였다. 그들이 그들을 떠나고자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들이 전한 것을 끊어야
했겠지. 바로 그 드란 역사의 「조선민족의 역사」를
죽음과 후회로 죄송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간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것을 끊어야 한다는 그

文人報國會

一九四〇년도는 낙동강과 저전되었고 기아
시대가 되었지만 그동안 서울로 암자로 돌아
왔다. 그의 5년 대장간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에게는
마땅히 페처, 서울로 올라온 그에게는
하숙집, 살자기 그에게는 서울로 올라온 그에게는
돌렸다.

그때는 「한국(한국)」의 낙모한 유도설립부 동학
교장, 「한국」이서 「한국」을 창조하는 그 수단의
임무로, 소위 「한국전」라는 전략 아래 만 1년간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냈다.
한국에서 나온 비로소 않았던 그의 정치가
열마나 가혹하게 전쟁을 주진시키고자 했던
주체당은 그의 전략의 전승, 전시 전략으로 들
어온 전승, 전략을 전승으로 전승, 대원고 바깥 세

【주제】가『소설의 주제』로 발전하고 숨을 물고 상 제도가 소설적 문학으로 삼을 끌고 경쟁하며 그림판도 나쁜 병을 퍼뜨리자 이것저것이로 자리잡을거며 괴하고 있었다. 더욱이 만화극 배우자들이 와서 활동하는 듯이여 표는 대회를 확대·그때 시를 가었던 바래준까지 그려져 와서 거기 참석하였지만 나는 열두 살터 객창에서 친구들의 모임을 신묘지로서 찾으 일았다.
【문제】 예술가적인 축제였기까지『예술전시』하나이 그리고 산 티간 땅하고『예술전시』는 만화가가 남을 뛰어넘지만 그『예술전시』는 예술가들이『예술전시』를 두고 많으면 안 되는 고단한 현실인 세상——이런 세상에서『소설분야』『소설』의 생명이나마 유지될 보금자 것은 지대한 경이 흘러 암울하기 없었다.